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재한



지난 금요일 제19대 국회의원 후보등록이 마감되었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이미 시작되어 오는 월요일까지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도 오늘 시작되어 선거일 전날인 4월 10일(화)까지 허용되어 있다. 선거일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유권자들은 어떻게 임해야 할까?

한국 선거의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 선거를 특징화한 문구로는 여촌야도(與村野都)와 도저촌고(都低村高)가 있다. 그러나 시골이 도시보다 여당을 더 지지한다는 여촌야도 현상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고학력자가 야당을 더 지지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대신에, 나이 든 유권자가 젊은 유권자보다 투표에 더 참여하고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하는 연령 효과가 있을 뿐이다. 시골 거주자 가운데 나이 든 유권자가 많고 또 나이 든 유권자 가운데 저학력자가 많다 보니, 연령 효과를 도농(都農) 효과와 교육수준 효과로 잘못 받아들였었다. 도시와 시골의 투표율을 단순 비교하

면, 시골의 투표율이 도시보다 더 높은 도저촌고 현상은 종종 관찰된다. 지방 유권자의 높은 투표율은 그만큼 지방의 입장이 선거에 더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저촌고 현상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나이 든 유권자의 투표율은 지방이

당신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더 높았는데, 젊은 유권자의 경우는 지방의 투표율이 대도시보다 더 낮았다. 젊은 유권자의 낮은 투표율은 그들의 견해가 선거결과에 덜 반영된다는 의미이니, 자신의 견해를 선거결과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키려면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연령과 더불어 한국인 투표선택의 주요 결정요인은 지역주의이다. 한국 유권자 다수는 지역적 정체감이 자신과 비슷한 정당에게 투표해 왔다. 특정 지역의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

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어떤 정파가 특정 지역을 장악하면 다른 경쟁 지역에도 배타적 정파가 등장하게 되고 서로 상승작용해서 지역할거 정당체제로 고착화된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특정 지역의 지역주의 약화는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 약화를 가져다준다.

영남, 호남, 충청 등 대부분의 지방에는 지역패권 정당이 존재하여 왔다. 원래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의석이 배정되는 지역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지역패권 정당을 도모할 정치적 이익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특정 지역의 전 선거구를 석권하고 또 타지역에서도 그만큼의 의석을 얻더라도 국회 내 교섭단체조차 구성할 수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패권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 정치력을 확보한 후에 지역패권 정당이 없는 다른 지역의 지지를 받아 국회 과반 의석이나 대권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에는 특정 지역에서 패권적 위치를 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만큼 손해이다. 특정 지역에서 실리적으로 혹은 선동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 소리, 저기에서는 저 소리' 하기가 쉽지 않다.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정당 언행을 잘 관찰해야 한다. 지역 유권자는 지역 정체감에 호소하는 선동이나 구체적 대안 없는 반(反)○○ 캠페인에 동원되기보다는, 당선 후의 의정활동을 예상해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민의 뜻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의정에 반영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후보 선택의 주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거 때의 인기보다 국회의원 임기 완료 후의 평가가 가장 좋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삼모사(朝三暮四)적 선거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그것이 득표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 감성 위주의 화장발, 세치 혀에 의한 말발, 지속 불가능한 근시안적 선심성 공약 등이 더 잘 통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유권자에게 손해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잘못되었다면 그 국회의원을 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유권자가 지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지역사회, 유권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1320만원 벌어 1160만원 쓴 소비도시 광주

광주가 여전히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데도 소비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 이후 지역내 총생산 추이'에 따르면 광주의 GRDP는 24조4000억 원으로, 2005년 18조9000억 원보다 23.9% 늘었으나 전국 증가율 비교할 경우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광주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로, 대전(2.3%), 강원(2.5%) 등과 함께 최하위권이다.

1인당 GRDP 역시 1680만 원으로, 5년 전(1310만 원)보다 28.7% 늘었지만 증가율이 대구와 함께 가장 낮다고 한다. 특히 1인당 개인소득은 1320만 원으로, 5년 사이 29.5%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지출은 31.6% 늘어난 1160만 원으로, 소비증가율이 소득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이처럼 소비도시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업 위주라는 데 있다. 지난 2010년 통계를 보더라도 제조업 비중이 27.0%, 건설업은 5.0%인데 반해 서비스업이 무려 65.6%나 차지하고 있다. 고용효과와 소득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은 소비지출을 가중시킬 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한편 광주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체야 가이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및 광산업 등이 고작이다. 따라서 광주가 생산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와 지역민이 합심해 '기쁘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그 전제다.

정부가 말로만 지역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대기업의 지역 이전 유도 등 실질적인 육성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수박람회장 주변에 폐수 무단방류라니

개발 40여일을 앞두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 환경관리가 엉망이어서 성공 개최가 의문시 된다. 행사장 인근 바다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주변 업체들의 환경보호 의식 결여로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여수와 광안리만 오염 배출업소 47곳을 대상으로 전남도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한다. 환경청은 이 가운데 폐수를 무단방류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다른 적발 업체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산물 가공업체가 생선을 씻은 폐수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바다에 버렸다

가 고발됐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수질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박람회 전용 물류센터 바로 인근에 있는 제조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공장을 가동하다 단속됐더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주지하다시피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성공 개최가 의문시 된다. 행사장 인근 바다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주변 업체들의 환경보호 의식 결여로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람회는 여수를 전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참여해 성공 개최를 일구어내야 한다. 환경을 주제로 한 박람회 오명으로 얼룩진다면 국가적인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남도가 조만간 여수·광안리만 155개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책회의'를 연다고 하니 한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체와 시민들의 껴있는 환경마인드를 당부한다.

의료 칼럼



김수완

요즘 아이들은 식생활 변화로 인해 충치가 생길 확률이 높다. 특히 사탕·초콜릿·탄산음료 등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섭취횟수도 잦아 치아가 썩기 쉽다.

어린이들은 구강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심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아기의 구강건강 관리는 '아차과 빠질 치아'라는 인식 때문에 보호자 역시 아이들의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나 유치의 관리는 앞으로 평생 사용하게 될 영구치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어린 시절 구강관리 습관은 평생의 구강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아주 어려서부터 구강관리 습관을 들이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먼저 어린이의 양치질은 하루 네 번이 좋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의 치태를 없애 뿐 아니라 잇몸을 자극해 건강하게 만든다. 아침·점심·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 이렇게 하루 네 번이 적당하다. 또 양치질을 할 때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플라그를 제거한다는 기본으로 하되, 칫솔을 약 45도 기울여 치아와 잇몸의 경계면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빗질을 하듯이 닦아주어야 한다.

특히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길러 줘야 한다. 충치를 유발하는 구강세균은 아이가 잠을 자는 밤 시간 동안 더욱 활발하게 활동한다. 아이들이 아직 양치질에 익숙하지 않거 때문에 자기 전 양치질은 부모

건치아 만들기

가 직접 입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아주면 된다.

취침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은 금물이며 밤중 수유도 나쁘다. 입 안에 단 성분이 남아 있으면 균의 번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 전 양치질 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 안 된다. 아기의 경우에는 밤 중에 젖이나 우유를 먹다가 그대로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젖이나 우유를 먹은 후에는 반드시 유아용 칫솔로 양치를 하거나 물로 입안을 헹거 주어야 한다.

반드시 어린이 전용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의 구강구조는 성인에 비해 작기 때문에 성인용 칫솔을 사용할 경우 잇몸에 무리가 가고, 구석구석 제대로 양치질을 할 수도 없다. 입 안쪽 깊숙한 곳까지 닦을 수 있는 전용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탄산음료는 치아 건강의 적인 만큼 여러

서부터 탄산음료를 삼가는 버릇을 길러줘야 하며 과자, 사탕보다는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 과자나 사탕에 많이 들어 있는 설탕은 치아면에 세균이 잘 달라붙게 하는 동시에 세균이 잘 자라게 도와 충치를 만든다.

손가락을 빼는 습관도 없애야 한다. 이 습관은 아이의 얼굴을 돌출형으로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조기에 고쳐줘야 한다.

이와 함께 가능하면 아이가 치과를 좋아하도록 해줘야 한다. 치과에 가는 것은 아이들에겐 더없이 무섭고 아픈 경험이 될 수 있다. 치과를 방문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고, 아이들이 친근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아전문치과 방문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아이의 입안을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여다 봐야 한다. 아이의 이에 얼룩이 있는지, 입냄새는 나지 않는지, 치아가 잘 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선대치과병원 교수〉

기고



이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소망이 있다. 그중에서도 누구나 소망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건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부귀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고달프다. 반대로 정신적으로는 건강할

지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삶 또한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정신과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완도를 '건강의 섬'이라고 한다. 건강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깨끗해야 하고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워야 한다.

그러면 완도를 왜 '건강의 섬'이라고 할까? 우선 완도는 공기가 깨끗하다. 최근 완도의 공기질을 조사하여 분방 공기 중 음이온이 대도시 지역보다 50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외지에서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완도 신지 명사십리에 위치한 '해조류 스파랜드'에서 숙박을 한 이튿날에는 몸이 가벼워진 것을 실감한다고 한다.

완도는 바다가 건강하다. 완도는 전국 최대의 해조류 생산지역으로서 바닷속에서 자

라는 해조류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 바닷물의 산소를 증가시키고, 백반석으로 형성된 해저에서는 게르마늄이 분출돼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고 있다.

완도는 빼어난 해양경관을 갖고 있다.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는 마지막 섬이라 할 수 있는 '슬로시티' 청산도에는 해마다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보길도·소안도·금당도 등 어느 지역이나 빗길 닿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해양 자연공원이 있다.

완도는 여유와 풍요로움이 있다. 지난해 완도군에서 주민들의 소득조사를 한 결과 연간 1600여 가구가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다 보니 자연스레 여유롭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

완도는 웃음이 넘치는 고장이다. 완도(莞島)의 '완' 자는 '빙그레 웃을 완(莞)이다.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신선한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돈이 많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난다. 그래서 '웃음 섬(莞島)'이라고 한다. 완도군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유래를 살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웃음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웃음 테마촌'을 조성해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포복절도, 과안대소할 수 있도록 전시 시설과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에는 장보고 축제와 병행하여 '전국 웃음왕 선발대회'를 개최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웃음을 선사할 계획이다.

4월에는 화사한 유채꽃과 수줍은 청보리가 자태를 뽐내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도 시작된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건강의 섬 완도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구경하고, 맛있고 싱싱한 해산물도 먹고 크게 한방 웃으면서 건강을 다져보면 어떻게 생각해 본다.

〈완도부군수〉

끈 있는 쓰레기봉투 만들어 주부들 불편 없애줬으면

살림을 하다 보면 한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것이 주부들 마음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다. 살림하는 주부로서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이 봉투에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더 넣어 봉투 값을 아껴보려고 하는 게 주부들의 공통된 행동일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를 쓰다 보면 입구에 끈이 없어 마지막에 묶을 때 매우 불편하다. 쓰레기 봉투에 끈이 없기 때문에 봉투 중동이 부분까지 쓰레기를 꼭 차게 담기 어렵고, 그나마 꼭 차게 담을 경우 중동이를 오므릴 방법이 없어 쓰레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결국 주부들은 봉투를 묶을 수 있는 여분이 있게 봉투 윗부분에 쓰레기를 더 담는 것

을 포기하게 되므로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아니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손해가 맞다.

또한 봉투가 꼭 차서 버릴 때까지 쓰레기 봉투는 24시간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악취가 집안 전체에 퍼지게 된다. 한여름에는 거기에 꼬이는 날라리와 개미들까지 있어서 여간 불결한 게 아니다.

반면 일전에 가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끈 달린 쓰레기 봉투가 나와서 쓰레기를 조금 넣어 끈으로 묶어두었다가 다시 풀어서 마저 채운 후에 버리는 방식을 쓰고 있었다. 그만큼 쓰레기를 충분히 많이 넣을 수 있고, 쓰레기를 완전히 채워 버릴 때까지 가장 내

에서 악취 등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릴 때도 여간 편리한 게 아니었다.

더더욱 우리나라 봉투에는 왜 끈이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져왔다. 인젠가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얘기하고 왜 그런지,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유를 물어보니 특별한 대답이 없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강명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無等鼓

최근 모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차인표 효과가 엄청나다. 이 프로그램이 나간 후 해외봉사단체인 한국컴패션에 2주 동안 수천 명의 결연자가 탄생했고, 차인표는 김제동, 김미화, 김연진씨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소셜테이너와는 다른 평가를 받는다. 차씨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데뷔 후 18년 동안 기부, 공개입양, 해외봉사를 하며 소신 있게 활동해 왔다.

그는 최성상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하는 파격을 시작으로, 2005년과 2007년에는 두 딸을 공개 입양, 입양가족들에게 동질감을 부여하며 '입양아들'은 버려진 아이' 라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최근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수단체 사관 앞에서 수감기 채워져 끌려가는 사진을 통해 세계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냈다. 남수단 국경지역의 버려진 무장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한 정부군의 토벌작전으로 2003년 다르푸르 학살 같

은 참극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그동안 인근국 유엔 직원들이 수단 위기를 수차례 경고했지만 지구촌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클루니가 양민 학살에 항의하다 체포됐다는 소식에 비로소 수단 위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차인표도 최근 탈북자 복출 반대에 앞장섰고 그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4~5세 때 집 지하 실로 통하는 구멍에 얼굴이 끼었는데, 아무리 울어도 소리는 지어에 묻힐 뿐이었다. 옆에 있던 형이 동네가 떠나 갈 듯이 울기 시작했다. 어른들을 부르기 위해 대신 울어준 것이다.

지금 차인표와 클루니가 하는 일은 차인표 형의 울음과 같은 게 아닐까. 동생을 위해 울어준 것처럼 차인표와 클루니는 '대신 울어주기'를 하고 있다. '대신 울어주기'는 인기와 영향력이라는 확실성을 가진 인기인과 사회적 지도층이 가야 할 사회참여 방법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여론매체부	2200-621
편집부	2200-649	제2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8005	대표 FAX	222-0195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7-9500	대표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대표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